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문제행동 및 모-자녀간 의사소통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오 선 영(원광대) · 송 순(원광대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문제행동, 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의 관련성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고 청소년의 삶에 있어서 개인에게 형성된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상담 개입 전략을 개발하며,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능력을 높여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문제는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문제행동, 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또한 성별에 따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문제행동, 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규명해봄으로써,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표본 청소년 7,630명중에서 3,145명의 일반 중학생만을 표본으로 활용하였으며, 자아존중감 척도는 한유화와 정진경(2007)의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가 활용되었는데, 개인요인 자아존중감, 집단요인 자아존중감 등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척도가 연구 자료로 사용되었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청소년횡단조사 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모-자녀간 의사소통은 Olson와 Barnes(1982)가 개발한 PAC척도가 활용되었고, 총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학교생활적응은 이경숙(2006)과 이미자(2009)의 조사문항을 참고로 청소년횡단조사에서 총13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방법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빈도와 백분율, Cronbach's α 계수, t검증, 그리고 상관관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남자청소년은 여자청소년에 비해 개인의 목적을 우선하거나 개별적인 개체의 특징을 반영하는 자아존중감이 더 발달하였으며, 집단의 목표를 우선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특징을 반영하는 자아존중감의 발달은 여자청소년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또래와 어떤 형태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교우관계에 따라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도 남자청소년에 비해 여자청소년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문제행동, 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부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특징을 반영하는 자아존중감이나 범죄형 비행 경험하고, 개방형 의사소통을 더 많이 경험하는 남녀청소년들일 경우 교사관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의 목적이나 특징을 반영하거나 자신이 속한 집단에 부여하는 가치와 그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할수록, 의사소통을 개방적으로 표현하는 청소년일수록 교우관계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어떤 일에서의 성취감, 경쟁에서의 승리 등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좋은 대인관계, 타인에 대한 배려, 집단에서의 조화 등의 집단의 관계의 특징을 더 반영한 자아존중감이 높아질수록, 범죄형 비행 경험이 많을수록, 의사소통을 개방적으로 표현하는 청소년일수록 수업태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 청소년의 학교환경에서의 적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 반영이 필요하며, 의사소통의 형태 개발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교사와의 관계나 또래친구와의 관계, 수업태도의 향상을 위해서는 청소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유형 등의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자존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위한 훈련이나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사료된다.